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10

침례 (Baptism)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10: 침례(Baptism)

- 10.1 침례의 중요성
- 10.2 어떤 형식으로 침례를 받을 것인가?
- 10.3 침례의 의미
- 10.4 침례와 구원

변론 30: 재침례

변론 31: 침례 받기에 필수적 성서지식

변론 32: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변론 33: 모범적 침례의식

10.1 침례의 중요성

이전 학습들에서 여러번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복음 메시지에 대한 순종의 첫째 걸음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는 침례가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히.6:2). 우리가 지금까지 침례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아니한 것은 어차피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진리를 터득한 후에 있을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복음 진리 습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서가 제공하는 그 큰 소망에 연합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4:22)는 것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지 않고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갈.3:22-2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즉 복음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침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물로서 난다는 것은” 침례의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때에 그는 영으로 거듭 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난다”(벧전.1:23). 그와 같이 우리가 영으로 거듭 나는 것은 그 영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부응(副應)하여 생활하는 것이다(학습 2.2를 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갈.3:27), 그의 이름으로(행.19:5; 8:16; 마.28:19)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교회나 또는 사람이 조직한 종교 단체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예수의 구원하는 사역으로 성취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행.4:12).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적합한 비유의 말로 잘 설명하고 있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를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죄인들에게 내린 심판에서 구원 받게 한 것이 방주였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벧전.3:21).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 받았다. 그 방주 가까이 서있던 자든가 노

2 침례 (Baptism)

아의 다정했던 친구도 모두 아무 소용이 없이 죽고 말았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그 방주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홍수가 예시하고 있는 바(눅. 17:26, 27), 주의 재림이 가까와진 것이 분명하다(부록 3을 보라).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방주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긴급성을 전달할 수 있는 타당한 말이 없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성서적 예표가 더욱 능력 있게 실감될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세계에 돌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즉각 침례를 주었다고 강조한 기록에서 찾아보게 된다(행. 8:12, 36-39; 9:18; 10:47; 16:15). 이것은 침례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배우는 것이 허사라는 것으로 침례의 진가를 강조하고 있다. 침례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관문으로 아주 필요한 단계이다. 많은 경우에 여러가지 핑계로 침례 받기를 연기하고, 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리만큼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빌립보의 간수장은 큰 지진이 일어나 튼튼하게 지어졌던 감옥이 완전히 파괴되어 갑자기 생명이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 죄수들은 기회를 만나 도망치게 되므로, 그 댓가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믿게 된 그의 믿음은 실체가 되어, 바로 그날 밤에 침례를 받게 되었다(행. 16:33). 그에게는 침례 받는 것을 연기시킬 어떤 변명도 없었다. 3000년 전에 헬라에는 몹시 큰 지진이 일어나, 미친 죄수의 한 때가 일어나서 감옥을 부서버린 역사상 큰 사건이 발생하여, 직무를 소홀히 했던 간수들이 처형 당한 적이 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에 그것은 그의 생명과 그의 영원한 운명에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다. 그는 즉각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날마다의 직장 생활에서 생길 문제들, 그 자신의 정신적 상처 등등, 세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기를 주저하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영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취했던 것에서 그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가졌던 것을 입증한다(롬. 10:17; 행. 17:11과 비교).

사도행전에는 에디오피아의 내시(內侍)가 병거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서 성서를 공부하고 있던 기록이 있다(행. 8:26-40). 그 때에 그는 빌립을 만나게 되었는데, 빌립은 그에게 복음과 함께 침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은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사막의 오아시스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행. 8:36)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였다. 이 부수적 사건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은 침례는 오직 물이 많은 곳에서만 시행된다는 것을 근거 없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침례 (Baptism) 3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실제의 방법을 제공하신다.

사도 바울은 “곧 일어나 침례를 받을 만큼”(행.9:18),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극적인 비전(vision)에서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 그의 뛰어난 사회적 지위와 유대주의에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대망의 성공이 그의 침례의 연기를 유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 세계의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는 침례 받을 것과 공개적으로 이전 생활 방법에서 결별할 것을 즉각 결심하였던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보상(報償)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7-8, 13-14)고 그는 나중에 그의 침례 받은 경위를 피력하였다.

바울은 경주자가 승리의 테이프를 끊으려고 풀인 지점으로 달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이 정신을 집중하고 신체를 단련하며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침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 나가든가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고, 또는 몇가지 막연히 고백한 그리스도교 원칙을 고수하며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침례는 예수의 십자가 못박힘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롬. 6:3-5), 모든 면에서 활력의 궁극에 달하는 때인 것이다.

육체는 매우 노쇠하였으나, 영적 승리자,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비전에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다”(행. 26:19)고 추억을 말하였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적절하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를 받으려면 절대 후회하지 아니할 결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을 지각(知覺)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결정이 확고하지 아니하다. 그 대답은 매우 진지한 것이다. “어찌하여 나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을까?”

10.2 침례의 형식

세상에는 널리 퍼져있는 침례의 개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침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아기 이마에 몇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유아세례도 있다. 이것은 성서의 침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침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티조(baptizo)”는, 몇방울의 물을 이마에 뿌리는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물에 씻는 것, 또는 물에 잠그는 것을 의미한다(Robert Young 씨와 James Strong 씨의 성서사전 참고). 그 낱말이 옛

4 침례 (Baptism)

날 헬라 문학 작품에는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 ‘천 조각을 물감 물에 담궈서 염색을 하는 것’, 등등에 사용되었다. 천에 물감을 들여 색깔을 바꾸려면, 몇방울의 물을 뿌려 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깊이 잠겨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물에 잠그는 것이 침례의 형식라는 것이 다음 글에서 밝혀질 것이다:-

-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요.3:23). 침례 의식(儀式)에는 “많은 물”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침례가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양동이의 물로 몇백 사람이라도 족할 것이다. 요한이 물병을 들고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 강가에 모여들었었다.

- 예수도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마.3:13-16)라고 하였다. 그의 침례는 물속에 잠겼던 것이 분명하다.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 오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본을 따라서 물속에 몸을 잠그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그와 유사하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데리고 물가로 가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행.8:38,39)라고 하였다. 그 내시가 오아시스를 보았을 때에 침례 받기를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라: “보라 물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행.8:36). 그가 사막을 여행하던 중이므로 적어도 물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 없다. 만일 침례가 머리에 물 몇방울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므로(골.2:12), 몸 전체가 물에 잠겨져야 하는 것이다.

-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였다(행.22:16). 참된 개종(改宗)은 “죄를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계.1:5; 딤후.3:5; 벧후.2:22; 히.10:22을 참고하라). 그 씻는다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보다 물에 잠그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물에 씻는 어떤 형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몇 가지 지시가 있다.

침례 (Baptism) 5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봉사하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목욕통에서 몸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야 했다(레.8:6; 출.40:32).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나타내는 어떤 부정한 것에서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몸을 씻어야 했다(실레로, 신.23:11).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방인 문둥병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죄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나타내는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 있었지만 죄 때문에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의 치유는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는 것이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적 행동이든가, 또는 적어도 당시 널리 알려져 유명한 큰강, 예를 들자면, 다메섹 강이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 같은데서 몸을 씻으라고 요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는 그 치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간단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연합하는 이 간단한 행동보다는, 그 아브나강과 같이, 오늘날 유명한 큰 교회와 연합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근 후에 나아만의 몸은 “그 살이 여전하게 되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왕하. 5:9-14).

“침례”는 복음 메시지의 기초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후, 몸을 물에 잠그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성서에 근거한 침례의 정의는 실제로 침례를 받는 자의 신분에 관계가 없다. 복음을 믿고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았다면, 이론상으로 하자가 없는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침례는 그 받을 자가 몸을 물에 잠글 때에 바른 교리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리를 사정(査定)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자에게서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권장해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 신자들의 한 단체인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을 만한 복음 지식이 있는가를 심사 검토하여 침례를 받을 만한 지식이 있는가 문답하는 회견을 가진다. 우리가 공부해온 매학습 끝에 있는 학습 문답과 같은 것들을 토론하며 답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먼 곳까지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도와 그 회견을 하는 것이다.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의 소망에 함께 들어가는 놀랍고도 소중한 일이므로, 개종자의 수의 다과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 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양적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10.3 침례의 의미

침례를 받을 때에 몸을 물에 잠그는 이유는, 물 속에 잠기므로 죽게 되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의 이

6 침례 (Baptism)

전 죄의 옛 생활에서 죽고, 그 무지에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므로, 그의 재림에 있을 영생의 부활 소망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의 승리로 인하여 죄를 이기는 영의 승리의 새로운 생활을 할것에 연합하는 것이다.

-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6:3-5).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그것들에 연합해야 하는 것이다. 물에 잠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머리에 물 몇방울을 뿌린다고 해서 이 상징적 의미를 온전히 나타냈다고 할 수 없다. 물에 깊이 잠기는 침례로 우리는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다”(롬.6:6).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잠김에서 올라올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이다”(엡.2:5). 그렇지만 침례를 받은 후에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육신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육신성의 생활이 머리를 들고 나선다. 침례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은” 다만 생명의 길을 시작하는 것 뿐므로, 예수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치 그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과 같이, 그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눅.9:23; 14:27 참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을 생각할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평안”(골.1:20),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빌.4:7)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평안을 예수께서 약속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14:27). 이 평안과 영적 기쁨은 우리 자신을 못박게 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욱 더 값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1:5).

또한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죽었다는 생각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매우 활발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유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건 많은 그의 긴 생애에서 체험한 많은 경험에서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침례 (Baptism) 7

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침례는 그리스도 재림과 동시에 영생을 얻게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임으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이라”(벧전.3:21)고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부활에 참여하므로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였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14:19).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5:10).

침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연합한 것과, 그 후속 생활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것ियो,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것이라”(딤후.2:11,12).
-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후.4:10-11,14).
-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빌.3:10,11; 갈.6:14과 비교)고 하였다.

10. 4 침례와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그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느니라”(골.2:12-1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얻었느니라”(고전.6:11).-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죄 사하는 것의 예표이다(민.19:13). 그것은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학습 10:2에서 침례가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이

8 침례 (Baptism)

라는 설명하였다(행.22:16).그러므로 신자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우는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이다(계.1:5; 7:14).그러므로 그 “중생의 씻음이 라”(딤후.3:15)고 말한 것은 “물과 영으로 중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요.3:5).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인 “너희가 회개하여,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2:37,38)고 한 권면을 인식하게 된다.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며,그것 없이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죄의 삯,곧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다(롬.6:3).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행.4:12).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외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성서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카톨릭교와 널리 퍼져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은 성서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영생을 받게 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죄에 대하여 승리한 징표이다.우리는 침례로 그에게 연합하므로,죄의 세력이 그에게 미칠 수 없었던 것같이,우리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으로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으므로,...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롬.6:14,18).그렇지만 침례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으므로(요일.1:8,9),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다시 죄의 종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비록 침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해도,그것은 오직 그의 재림에서 달성하게 될 우리의 소망이므로,우리는 그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에 연합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그리스도 재림에서,구원을 얻을 것이라”(막.16:16).궁극적 구원이 침례를 받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그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전.3:15).우리가 침례에서 바로 구원을 얻는다면,우리는 죽지도 않을 것이므로,그 심판의 교리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고 권고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기타 모든 신자가 침례를 받은 후에도 구원을 향하여 노력하였다(빌.3:10-13; 고전.9:27).그는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딤후.1:2; 3:7; 살전.5:8; 롬.8:24),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후사가 된것에” 관하여(히.1:14) 말하고 있다.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마.25:46).바울의 놀라운 논리적인 영의 말씀이 빛나고 있다.“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라”(롬.13:11).그러므로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사실로 그것을 소유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하게 잡은 것을 끝까지

침례 (Baptism) 9

지 견고히 잡아야 하며”(히.3:12-14),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교리를 항상 기억해야 하며(딤후.4:16; 고전.15:1,2), 그 소망을 견고(堅固)히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벧후.1:10).

“구원 받았다”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구원 받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므로, 계속성 시제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계속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는 복음에 부응하므로 “구원 받은 상태”(being saved)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고전.1:18; 행.2:47; 고후.2:15). “구원 받았다”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하신 그 큰 구원에 관하여 과거 시제만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침례를 받음으로 그 구원에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딤후.1:9; 딤후.3:5).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다루는데서 예증된 것으로, 그런 형식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주 애굽을 떠나갔다. 그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연합되었던 육신의 세상과 거짓 종교를 온전히 떠나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수립하였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침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고전.10:1-2). 우리의 현 생활을 나타내는 것은 그 광야의 과정이며,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유다는 많은 사람이 그 광야 과정에서 멸망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느니라”(유.5).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죄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느냐?”고 질문했다면, 물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여 육신의 향락과 거짓 교리를 추구했던 것과 같이(행.7:39), 침례를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축복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준엄하게 경계하고 있다(고전.10:1-12; 히.4:1,2과 롬.11:17-21). 침례로 한번 구원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재림에 때에 저주 받을 위치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고한 많은 실례가 있다(사례들: 히.3:12-14; 6:4-6; 10:20-29).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는 교리, “한번 구원 받으면,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온전히 육신을 즐겁게 하는 교리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침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구원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례의 그 행동은 물론 침례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을

10 침례 (Baptism)

주는 것은 아니다.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에서 올라온 후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 재림에 그 나라에서 영접될 수 있을까 겸손하게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날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가진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 침례(浸禮)는 “선한 양심의 서약이다”(벧전.3:21). 침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그 맹세한 바를 선한 양심으로 지킬 것을 서약,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침례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큰 구원에 접근을 허락 받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한번의 침례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이것을 다른 말씀과 비교해보면(벧전.1:23), 침례 후에 생기는 영으로 나는 것은 영/말씀으로 말미암은 점차적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은 단지 침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은혜(엡.2:8), 믿음(롬.1:5) 그리고 소망(롬.8:24)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역설하며, “침례”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논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야고보의 말씀을 읽어 보자(약.2:17-24). 그것은 믿음과 행위의 그릇된 구별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복음의 참된 믿음은, 침례를 받는 것 등등,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로 진가를 입증한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약.2:24). 침례를 받은 여러 경우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다. 그 대답은 항상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행.2:37; 9:6; 10:6; 16:30). 그러므로 침례의 행위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필수적 조건이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우리는 다만 회개에 해당하는 일을 행하며 그것을 믿는 것이다(행.26:20; 막.16:15-16 비교하라).

우리는 일찌기 죄를 씻어버린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어떤 구절에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죄가 씻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행.22:16; 계.7:14; 랍.4:14; 사.1:16). 또 다른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겔.16:9; 시.51:2,7; 고전.6:11). 모두가 우리의 할 부분인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침례의 행위, 행동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첫번째의 걸음이 되는 것이다.

변론 30: 재침례(再浸禮)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또는 교회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침례든지 이미 받았으므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여간 침례를 받기 전에, 회개가 있고 적절한 복음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행.2:38; 막.16:15-16). 침례 의식은 물에 잠기기 전에 차서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받는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마.28:19-20은 그리스도가 침례에 관하여 설명하셨던 첫째 가르침과 관계가 있다. 어린애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회개도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물을 몇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침례가 아니다. 수영하는 자가 수영장에 풍덩 들어갈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에 부응하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침례가 아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물에 잠기는 것은 침례가 아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하나, 그것은 침례가 될 수 없다.

복음을 구성하는 그리스도교는 오직 “한 믿음”, 즉 ‘한 교리 체계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 믿음”을 믿은 후에 받는 침례 - 그 “한 침례”만 있는 것이다. “몸이 하나이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4:4-6).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하늘에 있던지 땅에 있던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의 믿는 것과 같이, 두 소망은 없는 것이다. “한 하나님”만 있으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의 본성, 등등과 같은 기초 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침례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막.1:4; 눅.1:77). 그렇지만 이것은 불충분하였다. 사도 바울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자들이 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준 기록이 있다(행.19:1-5).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자들처럼, 우리도 물에 잠길 때에 진실한 회개와 새 출발을 생각하지 않고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 믿음”의 모든 요소를 파악한 후에 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한 침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변론 31: 침례에 필수적 성서지식

많은 독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교리가 중요치 않고, 이 세대의 정신인 ‘사랑’과 ‘관용’을 호소하면서,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기본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교회에 속한

12 침례 (Baptism)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개종자들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피상적으로는 그럴듯 하게 생각된다. 이 학습에서는 구원 교리의 중요성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왜 서두르는가?

사도행전을 빨리 읽어 보면 복음의 기초적 가르침을 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간단한 고백만 있으면, 침례가 시행되었던 것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서 간단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없는 것이다. ‘복음주의자’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다른 지식 또는 인식이 있어야 그 말들이 의미가 있다고 시인할 것이다. 이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구절들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입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감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논점들은 언뜻 보기에 급속하게 개종한 것같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에 많이 있는 것같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필요한 것만 최고로 압축한 글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연설을 큰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것들은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실제로는 보다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예루살렘에서 말한 바울의 변명은 그것을 읽는데 4분이 걸린다(행.22장). 벨렉스 앞에서 연설은 1분, 아그립바 앞에서는 4분, 베드로의 오순절 연설은 그것을 읽는데 4분이 걸린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3분, 5000명을 먹이신 후 하신 주님의 연설은 6분(요.6장), 산상수훈은 18분 걸린다. 행.3:12-26까지 베드로의 전도는 큰 소리로 읽는데 2분이 걸린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한 그 전도의 내용에 대한 소식을 실제 광경으로 나타내는 글로 기록하는데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행.4:1).

이 사실로서, 침례를 받으려는 자들에게 지시했던 보다 더 장시간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어도 입증되는 것이다.

“지식의 (기적적)은사, 영(마음)을 분별하는 은사의” 소유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교리를 완전히 확신하는지를 검토하는 회견과 같이, 초기 전도자들은 전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시작에서 예루살렘에 대규모의 유대인의 침례가 있었던 것은 특별

침례 (Baptism) 13

한 경우이다. 그 후에는 그런 대규모의 침례가 시행된 적이 전혀 없다. 만일 그런 대규모의 개종자가 계속 있었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수년 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므로, 그들은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길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히브리서의 깊이와 베드로의 서신은 그들의 독자들이 구약성서의 많은 암시를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이 벨기세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서 묘사하며, 그들의 영적 미숙 상태 때문에 그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한탄하고 있었다(히. 5:11-12). 바울은 그들이 개종 이후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개종 시에 가졌던 지식 수준에 있다고 책망하였다. 그 서신은 사도행전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기에 침례를 받았던 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에클레시아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것은 교리의 본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전도 팀을 효과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교리를 가르치는 자와 침례를 주는 자를 구별하여 운영하였다고 생각한다(고전. 1:17 참고). 그리하여 그는 비교적 짧은 기간 한 곳에서 전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칭호는 그의 본성과 목적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 호칭만이 아니고 깊은 교리의 성명인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에 필적하는 것이다(요. 3:5, 18, 2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와 연합한 침례로서 그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연결로 만들어 놓는다(갈. 3:26, 27).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믿음과 침례의 연결에 관한 더 많은 실례들을 찾아낼 수 있다(행. 19:4; 10:42, 그 48과 비교. 2:37, 38; 눅. 24:47). 아폴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행. 18:25), 침례가 단지 한 행동이 아니고, 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빌립이...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는 것은(행. 8:5) 단지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것같이 들린다. 그가 전파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의한 것이 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행. 8:12). 그 “그리스도의 관한 것들이라”고 복수

14 침례 (Baptism)

(plural)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역시 침례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요.6:40)고 말하였다. 그 후에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7:17)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교리를 아는 것은 그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계.3:8)고 하므로,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이름에 필적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영감으로, “섬들이 그 교훈을 양망하리라”(사.42:4)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마.12:21)고 하여, 다시 그의 이름이 그에 관한 복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요한 이서(二書)와 삼서(三書)에는 순회 전도자들에 관한 것이 논의되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요삼.6,7). 이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큰 사명을 암시하고 있다(막.16:15-16).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침례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갈.3:26,27).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그 침례를 믿는 것을 내포한 믿음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그 짧은 고백보다는, 그 뒤따르는 순종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 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는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는” 일련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누가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눅 9:11; 마.4:23과 비교). 반면에 그것과 대응되는 기록에는 그들에게 “여러가지로 가르쳤다”고 하였다(막.6:34).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1분 간에 말할 수 있는 단 몇 마디 말이 아니고, “많은 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을 읽게 된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도성에서 전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행.14:21), 여기서는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단 몇마디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이 베뢰아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이 성서와 일치하는가 날마다 상고하므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유대인 회당에서 구약성서를 공부한 것이다-행.17:11).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구약성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은 후의 성서 공부의 과정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더라”(행.17:12). 우리가 성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

침례 (Baptism) 15

할 때에 그 가르친 것을 날마다 검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요일.5:1). 이것은 이런 구절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로...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1:18).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1:23,25).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그 복음을 인식한다는 그 사실을 요약한 것이다.

그 나라의 제왕

그리스도의 호칭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의어로 사용된 것을 인식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인 그가 이미 그들 중에 서 있으므로, 메시아가 어디에 오느냐고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왕과 같다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눅.17:21)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그의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현현 소식을 전하였다. 느브갓네살이 꿈에 본 조상(彫像)을 부숴버린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것이다(단.2:44).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케 할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돌은 그 나라로 그것이 그 조상(彫像)을 쳐서 결국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의 백향목의 비유에는, 그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 그것이 큰 나무로 자랐고,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인다”(겔.17:22-23)고 하였다. 그 “연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사.53:2).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도 연결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알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큰 나무로 자라, 그 나무 아래 각양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산다고 하였다. 그 나라의 말씀과 예수 자신의 연결은 살아있는 그 나라의 말씀으로서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온전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는 1세기 신자가 기본 교리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자세하게 논의해 보자.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문”에 해당하는 교리 본체가 있었다. 그 때는 또 다른 한가지 예언의 은사를 받은 형제들, -영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를 말하는 것이 있었다. 이 교리의 본체에는 영감으로 말한 것이 첨가되었었다.

교리의 본체

바울이 로마의 에클레시아에게 침례 전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비 교리의 본체를 마음으로 순종하라”(롬.6:17)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다. 그 “본체”로 번역된 헬

성서 기본 지식

16 침례 (Baptism)

라어는 “본(本)”, 또는 “표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본문의 그 “본체는” 어떤 다른 것을 복제한 교리의 부분을 말하는 것같이 보인다. 이것에서 바울은 침례를 받기 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정해진 교리의 본체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침례 전에 고백하는 것으로 현재 소위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몇마디의 진술은 아니었던 것이다. 에클레시아 안에 어떤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있었다”(딤후.3:5). 그들은 믿음의 기초 교리는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라고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 교리를 생각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친 기록된 그 교리 교본을 보라는 것이었다.

부활의 교리를 정의할 때에, 바울은 그것에 관하여 계시로 받은 것과 그것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근본 교리로서 전했던 것을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서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전.15:1,3,4)고 말하였다. 베드로도 그것과 유사하게 말하고 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벧후.2:21,22). 여기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바 그 “도(道)와 그 거룩한 명령”은 서로 침례의 씻음과 연결된 것으로, 그 도와 그 명령은 침례 받기 전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례 받기 전에 터득해야 할 그 명령은 단 한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가리켰다. 그러므로 그 단수로 “명령”이;라고 한 것은 침례 받기 전에 터득하고 있었던 교리 본체를 말하는 것이다. “받는다”는 것이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을 지시하는 여러 구절이 있다. 이것은 ‘복음’을 먼저 사도들이 받았고, 그들의 전도로 우리가 받고 있는 교리의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갈.1:9,12; 빌. 4:9; 골.2:6; 살전.1:6; 2:13; 4:1).

“믿음”

유다도 역시 “성도에게 한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道理)라”고 말하였다(3절). “그 믿음은” 침례 받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준 “교리의 본(本)에” 필적하는 것으로, 다른 구절들에는 교리의 본체라고 하였다. 바울의 권고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히.10:23)는 그 말도 그들의 침례 전에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 미쁜 말씀을 간직하라”(딤후.1:9)는 것은 그들이 본래 가르침 받았던 “그 신앙 고백문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다. “그 같은 믿음(common faith)이란”(딤후.1:4), 모든 신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교리의 본체와, 오직 “한 믿음

침례 (Baptism) 17

이라”(엡.4:5)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연결되어 있다(행.3:16).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믿음에” 포함된 동일한 가르침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딤후.6:10의 실천과 딤후.4:1의 교리 문제 때문에 바울은 어떤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배교(背敎)의 첫 단계는 “그 믿음”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것이다.

실천 사항들

실천의 문제들은 역시 교리의 본체의 일부분이다.“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행.24:24,25)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떡을 떤 것에 대한 지시를 전하였다.“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11:23).이것은 일련의 신자의 실천 사항이었다.바울이 나중에 에클레시아서에 자매들의 위치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시켜 그것을 확장시켰다.“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교훈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전.11:2,3).이 설명은 침례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그것들은 1세기에 주장하던 교리의 본체의 일부인 것을 지시하고 있다.그 “유전(遺傳)이라”는 말이 몇곳에 나오는데(살후.2:15; 3:6),그것은 교리의 본체를 말하는 것으로,모든 신자가 교리의 본체를 굳게 붙잡을 것과 그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분리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딤후.1:9).

초기 에클레시아에는 이미 받아들인 교리의 본체에 첨가해야 할 어떤 교리가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그러므로 바울은 영감으로 된 계시의 교리는 “미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딤후.1:9; 3:8; 딤후.2:11; 딤후.4:9),그것은 “그 믿음을 구성하는 교리의 본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딤후.1:15; 4:9)고 하였다.이것이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영을 믿지 말라”(요일.4:1)고 하신 그 경고의 이유가 된다.

특별한 사항들

다음 것들은 침례 이전에 인식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 복음의 일부로서 가르쳤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실례들이다:-

- “곧 내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 그날이라”(바울이 가르친 교리의 한가지:-롬.2:16).심판과 그 책임은 복음 교리의 첫째 조항이었다(행.24:25; 히.6:1,2를 보라).

18 침례 (Baptism)

-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른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갈.1:6). 모세의 법의 안식일 같은 것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그 나라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는 그 복음 전도자가 시온에 와서 “너희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통치하시리라”고 하며 전파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사.52:7; 롬.10:15과 비교).

- 그리스도의 본성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교제(交際)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요이.7-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행.8:12).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충분하지가 못하다.

- 그 나라에 관한 약속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갈.3:8; 히.4:2). 바울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그의 전도가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행.13:23,26). 그러므로 그것들은 구원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행.13:32). 그와 유사하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롬.1:1-4)고 하였다.

-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歷史)지식이 요구된다. 안디옥에서 전도한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면(행.13장), 그는 그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 있다. 그의 전도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강론한 그 해설과 그 전도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행.13:40,41). 오늘날 우리의 전도 내용도 그와 같은 것이야 한다.

결 론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다. “네가 네 자신을 살피고 교훈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므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딤후.4:13-16). 본서의 끝에 있는 부록 1의 중요한 교리 일람표는 그것이 물론 영감된 기록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거의 모든 교리로” 복음에 관한 성서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본 학습에서는 교리의 본체에 대한 절대 필요성을 알게 했으므로 독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그것들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교리의 본체의 내용은 침례를 받기 원하는 자의 교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충분히 터득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좋은

침례 (Baptism) 19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신자들은 환란의 때에 “그 믿음에 달려붙음으로 용기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있느니라”. 그 첫째 원칙에 대한 우리의 친밀함,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의 놀라운 방법을 굳게 붙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용기를 얻게 한다. 오직 우리의 규칙적인 복음 전도와 그 모든 것의 복습으로 우리는 그 혜택을 받게 되고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둡고 외로울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4:7; 1:12)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각주: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10:9).

확실히 해야 할 것들:

- “주 예수”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 내포되어 그 전체 교리의 본체에다. 이것은 침례 받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행.8:5,12절과 비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은 아마도 침례 받을 때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경우에 “믿고(입으로 고백하는 것-비교) 침례를 받은(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비교)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암시하였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인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8,9은 그 13절에 필적하는 것이다). 바울은 침례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행.22:16). 오직 침례만이 우리가 주의 이름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마.28:19).

- 그 몇장 전에 그 6장에서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바울이 그 10장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논하지 아니하였다.

- 그 구절에(롬.10:9) 앞선 그 6-8절에서,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했던 것으로, 그 9절에 있는 “주 예수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복

20 침례 (Baptism)

음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교리 본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였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1-14). “그 말씀과 이 명령이”은 그리스도라고 해설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이 복을 받을 그 말씀을 간직했었다면, 종았을 것을, 그와 같이 그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다면, 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에 해당한다. “네가 네 하나님 야웨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30:10)- 이 말씀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롬.10:9), 이 말씀에 어울리는 것이다. 이에 대비(對比)된 것은 다시 “그 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교리를 요약한 칭호인 것을 밝히고 있다.

변론 32: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그 행악자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2,43). 이 구절들은 구원을 위해 침례가 필요한 요소가 아니며, 죽으면 곧 하늘에 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와 모순된 다른 증거는 말고, 다음 것들을 자세히 읽음으로 그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셨다(막.16:15,16). 그 행악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그 때에 모세의 율법 아래 살고 있었다.

2. 바른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한다. 예수께서 그 행악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연합한 침례는 있을 수가 없었다.

3.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롬.6:3-5). 그 행악자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유일한 사람이다.

4. 그 행악자는 침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던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개종자들 대부분이 이전에 그늘진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마.21:32). 그 행악자가 침례를 받았다고 논증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 침묵된 논증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거부할 변명의 원칙은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침례 (Baptism) 21

5. 그 행악자는 예수께서 그의 나라로 재림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행악자는 예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마.4:23) 무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 나라가 수립될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결국 그 날에 심판자가 될 것을 알았으므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께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 행악자는 확실히 복음에 무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부활과 심판의 날에 구원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6. 예수께서 행악자가 자기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낙원(樂園)”이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언제나 지상에 있을 이상향을 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땅에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이다(계.2:7).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동안, 저주가 견히게 됨으로(계.22:3), 이 세계는 에덴 동산의 낙원 상태로(사.51:3; 겔.36:35) 바뀔 것이다. 헬라어 구약성서 역본(70인역본)은 이 땅에 이상적 상태에(전.2:5; 느.2:8; 아.4:13; 창.13:10) 관하여 그 “낙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Milton의 작품 “실낙원(失樂園)”에만 유일하게 그 “낙원이” 가공적으로 하늘의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께서 행악자에게 약속한 낙원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학습 5에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그 “낙원”은 그곳인 것이다.

7. 우리가 한글 ‘개역본’을 읽을 때에, 마치 그리스도와 행악자가 함께 그 날 “낙원으로” 간것 같이 되어 있다(눅.23:43).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 날 그 나라에 가지 못하였다. 예수의 시체는 무덤으로 갔다(행.2:32). 그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는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었다”(마.12:40; 16:21과 비교).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20:17)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가 죽은 그날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악자에게 약속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문제가 된다. 모순으로 보이는 그 대답은 본래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에서 바른 해답을 얻을 것이다. 그 문장을 번역할 때에 구독점(句讀點)을 잘못 찍은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구절은 “내가 오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문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Rotherham, Companion Bible, 등등 여러 역본이 그 오역을 인정하고 있다. 그 문맥을 의역(意譯)하면, “내가 네게 지금 말할 수 있다. 너는 네게 내릴 내 선교를 기다리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설이 된다.

22 침례 (Baptism)

8. 상기한 바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행악자가 이해하고 있던 교리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
- 그리스도의 재림
- 부활과 심판
- 심판의 책임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 그리스도의 부활
- 그리스도의 온전함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필요한 것
- 인류의 죄성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에 약간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그 사람이 가졌던 유의 교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그것이 없었다면,그는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의 최고점에 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그리스도에게,“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런 태도를 가진,그 다른 행악자에게는 구원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그 행악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얻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는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다른 행악자가 가졌던 그 교리를 참으로 터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론 33: 모범적 침례 의식

독자들에게 적절한 침례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1990년 11월 일요일,영국 Hartlpool에서 그리스도아델피안이 거행하였던 침례 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몸을 물 속에 잠그는 그 본래의 침례 의식은 그것을 거행하기 전에 그 수례자(受禮者),곧 “침례를 받는 자”는 철저한 회개와 복음 교리 터득과 더부러 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식(儀式)’에서 그와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보다더 깊이 강조라고,그것들의 의의를 그 심령에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거행해야 할 것이다.그곳에서 거행하였던 그 의식 순서는 매우 간결한 것이었으나 진지하고 정숙한 것이었다.그 의식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침례 (Baptism) 23

1. 개회 기도
2. 로마서 6장 낭독
3. 짧은 권면의 말씀(하기한 바와 같은 것)
4. 기도
5. 그 수례자를 물속에 잠갔다 일으켜 세운다
6. 기도

침례의식 주례사

오늘은 김 만복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분 후에는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극히 단순한 행위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을 수 없겠지만, 김 만복씨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물에 잠기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5까지를 읽은 바와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잠깐 동안 예수의 부활의 광경을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김 만복씨가 그 물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공기의 신선함과 적막함, 그리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의 느낌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멀리 가물거리는 예루살렘의 불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긴밀하게 관계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김 만복씨는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적은 무리의 사람이 목욕통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물에 잠겼다가 꺼

24 침례 (Baptism)

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 기뻐했던 것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한 죄인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김 만복씨는 그 생명으로 행할 때에 기쁨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서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은 역시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김 만복씨는 이제 주인을 바꾸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새 생명을 사는 것이 지탱해 나가기 힘든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 자유가 아니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침례로 물을 통과한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종살이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에서,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면서, 피할 길을 찾을까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를 보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김 만복씨와 같았으며 모두 침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때와 같이, 이제 김 만복씨는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물을 지난 그는, 그 나라인 그 약속의 땅에 즉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그 광야를 거쳐 가야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밤낮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있어, 그 구원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시.34:7; 히.1:14).

예수께서 요한 복음 6장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설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였었다면, 그곳에는 다른 양식이 없었으므로, 곧 그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강하게 “그 성서 읽기표대로” 성서를 매일 읽어나갈 것을 명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을 작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몇장씩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그들은 하루에 여러날 분의 만나를 거두지 말고, 꼭 하루분만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도 그와 같이 매일 새롭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라도 거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본격적으로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읊은 “내가 일정한 음

침례 (Baptism) 25

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반석을 쳐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고전.10: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본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매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기념예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자연적인 소원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광야를 거쳐 여행하는 자는 다른 여행자를 만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서로 토의하고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생활의 광야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계속 보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만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이든가 또는 회지로 왕래, 등등,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접촉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새 생활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서 읽기 등등, 어떤 일정한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온전히 그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므로 틀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김 만복씨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유익의 부응이 있어야 할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때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불렀고 모든 백성이 기뻐 뛰었습니다. 시편에는 그것을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동안 필요했던 것을 모두 공급하셨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에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야웨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야웨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혔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물이 흘렀도다”(시.105:35-41).

26 침례 (Baptism)

그 기쁨은 우리, 곧 여기서 당신의 침례를 입증하고 있는 장래 형제 자매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열심히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 예수와 천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과 그 기쁨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 함께 그 나라에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수례자의 이름은 바꾸어서 한국인의 이름으로 한 것을 알립니다.

학습 10: 학습 문제와 해답

1. 침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가?

2. 침례란 낱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a) 의뢰한다는 것
 - b) 물을 뿌리는 것
 - c) 믿는다는 것
 - d) 물에 잠그는 것
3.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롬.6:3-5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4. 우리는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 a) 복음을 깨달아 알고 회개한 후
 - b) 어린 아기 때에
 - c) 성서에 관심을 가진 후
 - d) 교회에 회원이 되고 싶을 때에
5. 침례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인가?
 - a) 교회
 - b) 하나님의 말씀
 - c) 그리스도
 - d) 성령
6. 다음의 어느 것이 침례 받은 후에 일어나는가?
 - a)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 b)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한다
 - c) 영원히 구원 받는다
 - d) 죄가 사해진다
7. 침례 받은 것만으로 영원히 구원 받는가?

8. 침례를 받은 후 우리는 영의 은사를 받는가?
